

한국문화교류 소식

55호 2025년 3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5643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3, 남양빌딩 4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故 박갑수 교수님을 기리며



위 호 인
ICKC 이사장

지난 2월 23일은 ICKC 2대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박갑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께서 향년 91세로 별세하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우리나라 국어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한류'가 세계인의 문화가 되기 이전부터 한국어의 세계화에 힘쓴 선구자이셨던 고인을 기리고자 합니다.

1934년 8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주고, 서울대 사범대학, 동 대학원(국문학과)을 졸업하고, 1969년부터 서울대 국어교육학과에 부임해 한평생 국어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셨습니다. 후학 양성에도 힘써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훌륭한 학자로 성장해 우리나라 국어학계를 든든히 이끌고 있습니다.

박갑수 교수께서는 한평생 우리말을 알기 쉽고 아름답게 순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1980년에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제의를 받고 경범죄처벌법 조문을 쉬운 말로 바꾼 것을 계기로 이후 법제처가 펴낸 '법률 용어 순화집' 6권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1972년 MBC에서 '이것이 바른말'을 진행했고, 1985~1987년 KBS 2TV '바르고 고운 말'에 출연하는 등 라디오와 TV에서 수십년간 우리말을 가르치며 스포츠 중계나 광고의 외래어 남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동아일보), '우리말 산책'(중앙일보) 등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서울대 사범대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과정’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1995~1996년 한국어국제화추진협의회 공동대표, 2001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등 한국어 세계화 운동에도 앞장서셨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문체론에 관심을 기울여 ‘국어문체론’(1994), ‘현대문학의 문체와 표현’(1998) 등 저서 70여 권, 연구논문 250여 편을 펴내며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도 정력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1999), 세종문화상(2015)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이렇게 평생 국어학 연구에 매진한 학자이자 우리말의 순화와 세계화에 기여한 박갑수 교수께서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는 우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의 2대 이사를 역임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박갑수 교수님은 언제나 성실하고 진중한 자세로 공적 영역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지만, 저는 온화하면서도 겸손하고 소탈한 인간적인 면모에 깊이 감화되어 ICKC의 일원으로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수님과 교류하며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는 포함되었던 네 개의 문자 아래아(·), 반치음(△), 옛이음(◊), 여린히음(◌)이 왜 지금은 사라지고 사용되지 않는지 자못 진지하게 토론한 추억도 떠오르고, ICKC 회의나 모임이 끝나고 교수님과 호프집에서 생맥주 마시며 여러 이야기하던 추억도 생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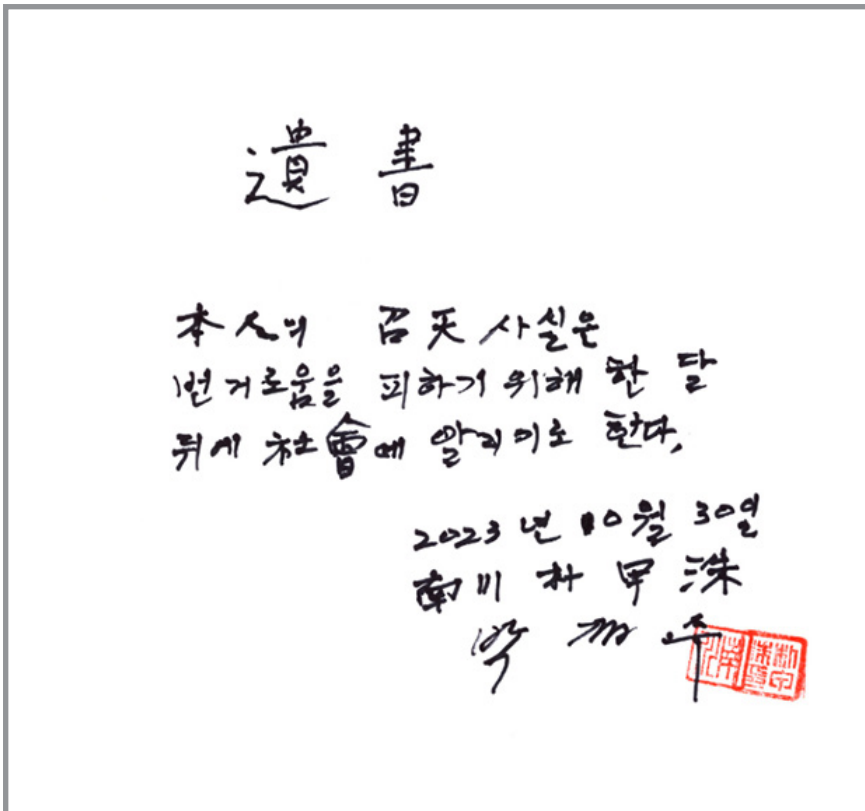
고인과의 마지막 만남도 호프집에서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0일에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KC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이 끝나고, 프레스센터 인근 호프집에서 지상학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그리고 박원출 ICKC 감사와 더불어 영화와 예술을 비롯해 국어 세계화와 한류 열풍 등에 대해 의견 나누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여, 이 모임이 박갑수 교수님과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좀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났으면 좋았으련만 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지만, 평생 국어 연구 및 한국어 세계화에 힘썼던 고인의 학문적 업적과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는 앞으로 더 재평가되어 먼 훗날까지도 칭송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은 “본인의 소천(召天) 사실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 달 뒤에 사회에 알리기로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은 고인의 뜻을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를 알리셨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자 혈안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태에, 고인은 평소 면모대로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미덕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인의 마지막 뜻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박갑수 교수님을 추모하고 기리며 글을 마칩니다.



▲ 본인의 소천 사실을 한 달 뒤에 사회에 알리라고 하신故 박갑수 교수님의 유서

싱가포르 '2024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 디지털 태권도의 새 역사를 쓰다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지난 해 11월 싱가포르 OCBC 아레나 스포츠 허브에서 열렸던 '2024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는 차세대 태권도 경기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대회로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3개국에서 12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와 개인증립자격선수(AIN), 난민팀 등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고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개막식에는 세계태권도연맹(WT) 조정원 총재, 서정강 사무총장, 양진방 집행위원을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 위원, 싱가포르태권도협회 쉐한탄 회장 등 체육계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역사적인 첫 버추얼 태권도 세계대

회의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WT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태권도선수권(1973~), 세계청소년선수권(1996~), 세계품새선수권(2006~), 세계장애인선수권(2009~), 세계유소년선수권(2014~),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2017~)에 이어 일곱 번째 세계선수권대회를 추가하게 됐다.

혁신적인 경기 방식... 가상과 현실이 만나다

버추얼 태권도 경기는 연령별로 ▲1315세 유소년 혼성부 ▲1635세 청년 남녀 개인전 및 혼성부 ▲36세 이상 성인 혼성부로 구분해 진행되며, 특히 남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조를 편성하는 혼성 개인전은 기존 태권도 경기와 차별화된 요소로 새로운 재미와 독창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경기 방식도 혁신적이다. 선수들은 4m 정사각형의 가상 경기장에서 VR 헤드셋과 모션 트래킹 장비를 착용하고 대결을 펼친다. 몸에는 다섯 개의 동작 인식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상대와 교전하며, 3전 2선승제의 라운드별 경기로 진행된다. 각 라운드는 최대 60초로 제한되며,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모두 소진시키거나 더 많은 게이지를 보유한 선수가 승리한다.


태권도의 새로운 도전...

e스포츠 올림픽 정식 종목 기대

IOC는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번째 e스포츠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며, WT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조정원 WT 총재는 “2025년 ‘e스포츠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과 전통 태권도의 조화를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버추얼 태권도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와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스포츠”라며 “혼성 개인전은 태권도의 경계를 확장하고, 기술과 스포츠가 융합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태권도는 지난해 IOC가 주최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에서 유일한 격투 가상 스포츠로 선정된 바 있다.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는 앞으로 태권도의 글로벌 성장과 디지털 시대에 맞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24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 개최사를 하고 있는 조정원 WT-ICKC 총재



▲ 버추얼 태권도 경기 모습



▲ 유소년 혼성부에서 우승한 싱가포르 자비스 압 선수

뉴욕 시 공립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안 현 주

Institute for Health Professions at Cambria Heights 교사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를 나와, 뉴욕 주 정식 한국어 교사자격증 취득 후, 퀸즈 남부 캄브리아 하이츠(Cambria Heights) 공립 고등학교에서 10학년, 1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1과 2(초급 과정)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계 학생이 전혀 없는, 미국인 14~16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한글부터 시작하여 테마 형식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는 미국 내에서 몇 개 안되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과정이 있어(뉴욕 주립대 1곳, 뉴욕시립대 1곳), 전문 한국어교육자를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뉴욕 시 공립 학교(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에서 다양한 외국어 중에서도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가 2021년 19개교에서 24년 35개교로 늘어나는 등

한국어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총 4개반 136명의 학생과 방과후 '코리안 클럽'까지 매주 1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물론 한국 전통, 한국 음식, 케이팝, 한국드라마 등의 한국문화 콘텐츠로 수업 및 클럽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2년차(10학년)에 '한국어 1'을 듣는 학생들은 한글 익히기, 한글의 역사, 낱말 익히기를 통한 가족 말하기, 문장 익히기를 통한 자기 소개, 절기에 맞춘 한국 전통 알아보기(추석, 설날-한복 입어보기, 세배하는 법, 복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2년차(11학년)에는 다른 시차(과거/현재/미래)를 사용한 일상 소개하기, 한국여행 계획 짜기, 한국 역사 바로 알기(삼일절, 한국전쟁), 한국 예술 접하기(부채 만들기, 매듭 등), 한국 음식 쿠킹쇼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아우르며 전반적인 한국 알아가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외국어 교사 자격증 과정에서 배운 테마형 커리큘럼 개발에 기반을 두고 매 학기 1-2개의 유닛 플랜, 그에 맞춘 개별 레슨 플랜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각기 다른 학습 습득 유형과 선호도를 염두에 두고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다른 학습 유형을 잘 조합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연

동적일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성향의 학생층에게 맞춤형 학습을 하고자 미국 내 한국어 교사 및 미국 외국어 교사들과의 교류 등 끊임없는 자기 계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뉴욕 시 공립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인 Big Apple Award를 받았고, 2024년 뉴욕 시 교육국에서 실시한 'Big Apple Fellowship'을 통해 다른 분야의 교사들과 수업 노하우를 나누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 방안들을 뉴욕 시 교육국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6년 봄방학(4월) 때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과 미디어, 한국어 선생님에게만 배웠던 나의 조국 '한국'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비록 미국의 한 주 크기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한강의 기적, 위대한 문화 유산, 아름다운 한국의 정이 그들의 삶에 각인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한국어 교육자들 분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 ① 한글수업
- ② 한복체험
- ③ 김치 만들기
- ④ 한복종이접기



한국인 학생이 한 명도 없는 Q243 뉴욕시공립고등학교 초청으로 가야금과 장구 등으로 설명절 축하공연을 연 가야금 연주자 서라미 한류문화재단 대표 <좌측>와 우측 연주자 김 준(June Haley Kim)양. 이 학교 한국어교사 안현주 씨 <우측 2번째>가 초청했다. <서라미 대표 페이스북>



한국어

일본 고교생 한국말 대회 열려... 역대 최다 인원 참가

일본 고교생들이 한국말 실력을 겨루는 주일한국문화원 주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승전이 지난 3월 8일 도쿄에서 열렸다. 올해로 18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394명의 일본 학생이 참여했으며 약 4개월 전부터 진행된 지역예선을 통과한 25명이 이날 결승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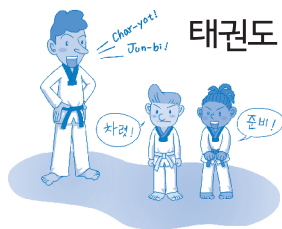
대회는 ‘음식 궁합’을 주제로 한 2인 촌극(스킷)과 스포츠, 학교 등 4가지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 자기 생각이나 경험담을 말하는 ‘스피치’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스킷 부문에서는 “낫토와 김치가 떡볶이와 튀김처럼 찰떡궁합”이라는 이야기를 촌극으로 펼쳐 보여준 나가사키현 쓰시마고교의 다카하시 미류·아마노 메즈루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스피치 부문에서는 “언어를 몰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K팝의 매력도 소개한 아와시마 아이코(다쿠쇼쿠대학 제1고교) 양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형식 주일한국문화원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응모자가 몰려 뜻깊다”며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쌓은 추억을 바탕으로 한일 우호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2025/03/08



▲ “낫토와 김치가 떡볶이와 튀김처럼 찰떡궁합”이라는 이야기로 스킷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쓰시마고교 학생팀 (주일한국문화원 제공)



태권도, 2026 다카르 유스올림픽 '3대 메달 종목'으로 우뚝

태권도가 2026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리는 하계 유스올림픽(청소년올림픽)에서 3대 메달 종목이 됐다. 지난 1월 8일 세계태권도연맹(WT)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다카르 유스올림픽 메달 종목 및 참가 선수 쿼터를 결정하면서 태권도에는 11개의 금메달을 확정했다.

2026 다카르 유스올림픽에서는 2천700명의 선수가 남녀 각각 72개와 혼성 7개를 합친 총 151개의 메달 종목에서 경쟁한다. 25개의 정식종목 중 태권도는 육상(38개)과 수영(28개)에 이어 세 번째로 금메달 수가 많다. 태권도의 국제적 인기와 위상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태권도 다음으로 복싱(10개), 유도·레슬링(8개씩), 펜싱(6개) 순이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다카르 유스올림픽과 세계대학대회에서 태권도의 메달이 늘어난 것에 대해 “태권도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합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자리매김했고 나아가 겨루기 혼성단체전, 품새 등도 메달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다”면서 “이는 태권도의 탁월한 접근성, 대중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겼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5/01/08



▲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올림픽 태권도 경기 장면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발전기금 전달 및 조정원 총재 신년인사

지난 1월 3일(금),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 10층에 위치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자 ICKC의 총재이기도 한 조정원 총재를 찾아 뵙고 신년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세계태권도연맹과 ICKC의 지속적인 친선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CKC 위호인 이사장을 비롯해 박의근 재정위원장, 이효정 이사, 강석재 이사가 참석했고, 조정원 총재는 ICKC 임원진을 환영하며 감사를 표했고 서로 신년 덕담을 나누었다.

조정원 총재는 매년 태권도발전기금 전달로 전 세계 태권도 발전에 힘쓰고 있는 ICKC의 활동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선친인 故 조영식 박사가 1975년 밝은사회운동을 주창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5년을 기념해 ICKC가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에 전달한(2024년 12월 27일) 발전기금 1천만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 총재는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금처럼 발전적으로 협력하자고 했고, 전 세계 난민촌에서 태권도 교육에 힘쓰고 있는 태권도박애재단(THF)의 활동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ICKC 임원진 모두 협조를 약속하고 환담했다. 이어서 IOC로부터 수여받은 '올림픽킵' 실물을 보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전 세계 활동상을 담은 여러 홍보영상을 함께 관람한 뒤 단체로 기념촬영하고 신년 인사 방문을 마쳤다.



▲ 세계태권도연맹을 방문한 ICKC 임원진. 왼쪽부터 박의근 재정위원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 위호인 ICKC 이사장, 이효정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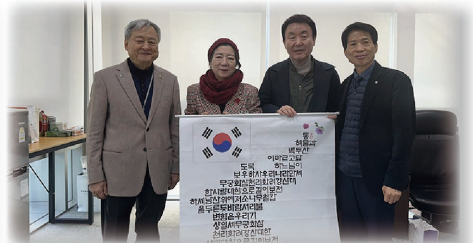
▲ 세계태권도연맹이 IOC로부터 수여한 올림픽킵 실물을 들고 기념촬영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방문 및 박창식 원장 면담

지난 1월 9일(목),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한류 문화 홍보 및 국제교류의 중심적인 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ICKC의 친선 및 공동 사업 모색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을 방문한 ICKC 임원진. 왼쪽부터 박의근 재정위원장, 박창식 KOFICE 원장, 이효정 이사, 강석재 이사.



▲ 애국가 가사로 된 우리나라 지도를 들고 함께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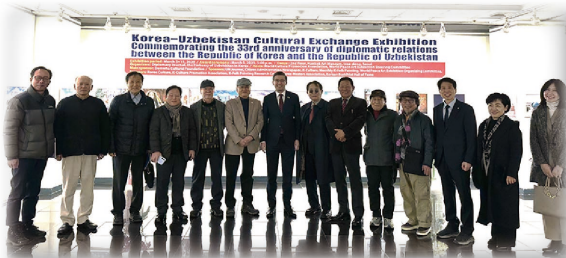
ICKC 박의근 재정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재 이사, 이효정 이사가 방문했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박창식 원장은 임원진을 환영하며 감사를 표했고 서로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KOFICE 박창식 원장은 각종 자문, 사업 기획 등 ICKC와 오랜 인연을 맺고 여러 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 및 면담이 더욱 뜻 깊다고 참석자들 모두 입을 모았다.

박창식 원장은 국내외 문화탐방, 소식지 발간, 문화단체 후원 등 한국어, 태권도 등 한국문화의 교류를 위해 매년 힘쓰고 있는 ICKC의 활동을 격려했고, ICKC 임원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교류전담기관으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류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및 박창식 원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문화 진흥 및 국제교류를 위해 한국문화국제교류진흥원과 ICKC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모색해 보자고 뜻을 모았고, 이후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이날 방문을 마쳤다.

■ 우즈벡 대사관 주최 'Korea-Uzbekistan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및 이석희 개인전 '여여(如如)하다' 관람

지난 3월 10일(월), 2025년 첫 문화탐방으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주최한 전시 및 이석희 정일세무법인 회장(전 국제청 차장)의 개인전을 관람했다. ICKC 임원 및 많은 회원들이 인사동에 모인 뒤, 먼저 '한국-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전시'(Korea-Uzbekistan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 '한국-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전시회' 관람 후 단체 기념촬영. 가운데(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신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관람을 위해 한국미술관으로 이동했다.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린 본 전시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수립 33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과 국민들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실감나는 사진들과 회화들이 ICKC 회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 이석희 개인전 '여여하다'에서 작품 설명을 경청 중인 정현관 회원, 김용구 ICKC 고문,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및 압두살로모프 우즈벡 대사(왼쪽부터)



▲ 이석희 선생의 개인전 개최를 축하하며 박수를 보내는 ICKC 회원들. 맨 오른쪽이 이석희 선생.



▲ 이석희 개인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ICKC 회원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특히 이번 ICKC 회원들의 전시회 방문에 맞춰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신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내외도 특별히 함께 해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압두살로모프 대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다방면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온 김용구 ICKC 고문 및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을 비롯해 방문한 모든 ICKC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서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국제청 전 차관을 역임한 이석희 정일세무법인 회장의 개인전 ‘여여하다’ 관람을 위해 인사동 백악미술관으로 이동했다. 호정(浩亭) 이석희 선생의 팔순 기념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 담백한 화풍에 짧은 글을 곁들여 조선시대 문인화를 연상시키는 수묵화 120여 점을 비롯해 시집, 사진 등 다방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특별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림 실력과 심금을 울리는 글이 특별히 인상적인 전시였다. 이 전시까지 동행한 압두살로모프 대사를 비롯해 ICKC 모든 회원들이 이석희 선생의 작품 설명을 흥미롭게 들으며 즐겁게 관람했다.

두 전시를 관람하고 나서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2025년에도 많이 모이고 자주 교류하며 뜻 깊은 ICKC 활동을 이어 나가자고 서로 격려하며 친목을 다진 후 해산했다.

2024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4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실, 강재근,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성열, 김소진, 김승한, 김시범,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옥, 김호일, 김홍석, 도재영, 박경명, 박기연, 박명수,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송대성, 심의표, 양수영, 오일호, 위호인, 유영찬, 유자호,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인재, 이행로, 이향구, 이현목, 이효정,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전찬수, 정경수, 정상설, 정현관, 조남철, 조성직, 조춘연,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아트코리아, (주)포스코DX, (주)P&H

가나다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액 : 145,694,300원

2025년 후원하여 주신 분

강영실, 구병진, 김건길, 김소진, 김시범,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택, 김진원, 김창옥,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배대환, 송대성, 양수영,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영섭, 이향구, 이효정, 이효진, 전영섭, 전찬수, 정경수, 정상설, 정현관, 조춘연, 추호석,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루이제,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P&H

가나다순,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15일까지

총액 : 4,54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 2024.03.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최불암 예술인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이효진 前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 2022년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및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스리랑카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 202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폴란드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 2024년 네팔 GCS 국제대회 참석 및 네팔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밝은사회운동 결성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전달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14주년 기념 포럼에 초대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정기총회 및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세계인이 사랑하고 교류하는 한국문화 융성을 위해
공공 외교와 재외동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토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_ 2025년 3월 28일(금), 14:30~17:00

·장 소_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서울 광화문)

·프로그램_ [총 회] 개회사 및 경과보고, 안건 상정 및 승인

[포럼] 주 제 : 한국문화 국제교류를 위한 외교와 재외동포의 역할

강연자 : 이영호(前 예맨대사, 북경총영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 찾아오시는 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T. 02-2001-7652



* 지하철 1·2호선 **시정역** 4번 출구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3,
남양빌딩 401호

홈페이지 <http://www.ickc-seoul.net>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ICKC와 함께 하시는 분들

- 고문** 강성구 前MBC사장
김용구 (주)신동회장
박관용 前국회의장, NDI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표재순 前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익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심의표 前KBS 부산총국장
이효진 前주한호주대사관 사무총장
정순영 前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한국조폐공사 사장